이웃의 등대 · 민족의 구원선 · 세상의 나침반 $\bullet \quad \blacksquare \quad \bullet \quad \blacksquare \quad \bullet \quad \blacksquare$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Rev. Steven Martinolich	11:15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	Organist
Praise & Worship ·····	Praise Team
Call to Worship Psalm 107:1,43	Presider
Prayer ·····	Director Lheem
*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38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Psalm 35:18 ····	Presider
Anthem ·····	Jerusalem Choir
Sermon Our Thanks is Knowing God	Presider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Song ······ All Things Come of Thee ····	Together
* Offering Prayer ·······	Presider
Welcome Newcomers ·····	Congregation
Member's Blessing ·····	Congregation
* Hymn ······ 310(410)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Our Thanks is Knowing God Psalm 35:18

Summary of the sermon

What marks maturity, in a believer and follower of lesus Christ? Our final destination is filled with constant praise and thanks in the great assembly to the Lamb, our Lord lesus Christ, Our way in knowing God then, must be in constant growth and transformation in thanks.

Thankfulness follows our path from beginning to end. As we mature in our faith, we automatically become more aware of God's hand in things. What starts off as coincidence, transforms into God's sovereign reign and intervention and control of the things in our life. And along this road of opening our eyes and hearts to God's hand in our lives, we find a constant growth in our thanks and recognition of His love.

Thankfulness is our weapon of strength. Thankfulness always allows us to stay in the truth of God's sovereign hand in our lives. Thankfulness is our strength in coming to the truth of God's love, especially when our circumstances are revealing trouble, suffering, and loss. It is our weapon of hope and faith in every, and all, situations. Thankfulness is our deep and inexpressible witness of God. When lesus was born, the Book of Luke reveals how Mary treasured all the things she witnessed in her heart. This is something that can never be taken away. Thankfulness and witness of God are the most powerful things we can experience in the flesh. Thankfulness becomes the rock we stand on to change and transform our lives.

Let's look upon the end of the year with complete thankfulness. And if we cannot, we can at least recognize the necessity to begin this New Year with thankfulness. Thankfulness is not only our expression of knowing God, and trusting God, it is our strength and power to bring us through any circumstance and our strength and witness that no one, or no thing, can ever take away.

Announcement

-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in room 104 for our Christmas Feast!
- -Our Discipleship I & II are on break until the new year.
- -For all people who helped support GuRyong Maeul, please accept our thanks!!! Please pick up your Card and Framed Picture. God's love was truly known through you.
- -Praise God for all those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ed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4472 844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계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층			
	тн	가 족 예 배	오전 9시				
	I 부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ы rl			
주 일 예 배	I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본당			
	∏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I,Ⅲ,Ⅳ층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	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	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I 부예배	오전 11시	본 당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I,Ⅱ,Ⅳ층			
	어	린이 수요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	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	n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1부	오전 10시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섀	2부	오후 12시40분	602 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가 족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부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킬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	회	오전 9시	6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	회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김	l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정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박다형 최언에 하승일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원종천

선 교 사 강야곱 주한나, 이사라, 권요셉 조에스터, 김모세 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강혜정, 양재성 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 홍성임 (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왕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Ngiang Hi-Samuel Kei Sum(미인터)

제22권 제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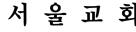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2년 12월 30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 대한예수교 장 로 회

담임목사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노 Senior Pastor Park, No Cheol

Tel 558-1106 / Fax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쓰임 받는 인생

(God's Instrument)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 노 1:26-38

하나님은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리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그 인생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잘 살 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아름답고 놀라게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1.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눅 1: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 당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반대로 가장 처하게 여겨지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혐오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이런 시골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고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추측이 아니 라 마리아가 스스로 구백한 "마리아 차가." 수위 Magnificat에 나오는 구백입니다. (눅 1:48) 그의 여종의 비처함을 돌부셨음이라. 그렇다면, 하나는 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이런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가정 배경도 출신지역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도 결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머 니, 성모를 찾으시는데 그런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시료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 됨 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한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구의 대상도 아니시고 이해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저히 신뢰하시 고, 그분께서 하시 모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 잘 것을 믿어.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위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2.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눅 1:31-33)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하 아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리아의 전부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소 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두렵고 땔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을 희생하기토 결심합니다. (눅 1:38)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상 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너무도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에 사로잡힌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 생이 아닐까요? 기꺼이 내 젊음과 인생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은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이 안 된다고, 난 자격이 없다고, 난 그럴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 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목적이라면 이 비천한 삶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과 순종만 있으 면 됩니다. 마리아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너무도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 놓았기 때문임을 잊지 말고자 합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사용하 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뤄질 줄로 믿고, 자신의 최 선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erry Christmas!!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오세광 목사	오세광 목사
П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영기 장로
Ш	오호 2시	하상은 모사	중서조 자근

		고우 2시	인성은 녹사	5	<u> </u>	<u> </u>	로
	얍	계송 Prelude ·······			오르	'가니:	스트
	예비	il에의 부름 Call to Worsh	ip ······시 90:17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	방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	교독 Responsive Read	ding …1,3부(십계명)		다	함	께
			2부: 36(시 90편)			
*	송	영 Doxology ······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Ó
	찬	송 Hymn	384(434)		다	함	께
	성강	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16:1-16·		인	도	자
	성	E의교제 Member's Fello	wship ·····		다	함	께
	헌	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합	헌송 Offering Hymn …	634(70)		다	함	께
*	봉합	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기	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 Sermon ······	"기다림의 시간들"		박노	-철 5	갂사
			(Times of Waiting))			
	-1	A			7 -1	-1	1)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 입니다.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오	후 5시 ·인도, 설교	<u>:</u>	박노	철 목	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 사 44:21·····		인	도	자
	찬	송 445(502)		다	함	께
	기	도		ों	주 주	화
	찬	송430(456)		다	함	께
	성	경고전 2:6-16		인	도	자
	전도	상시상, 주간성경공부수료 ····		맡	은	O
	장로	,집사,권사 은퇴식		맡	은	O
	찬	양		찬	양	대
	설	교"하나님의 지혜"		설	교	자
:	찬	송366(485)		다	함	께
	축	도		설	괴	자
>	주기	هعا'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성 경······마 9:1	은옥 권사 II부 : 남태순 권사 8-26······ 인 도 자
	찬 양 대 님의 다양한 역사"…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딩	2층
서			모ル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9	냥 대			헌 금 송		
예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l 부	가브리엘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차민형		조현정
II부	할렐루야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윤주일	고성진		김양언
⊪부	임마누엘	류충기	김여정	양경실	윤중현1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김정희16	박수강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1= 0 .112	
수요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 라 하라 (눅 1:31)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수요॥부	시 온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 प जप (क	1.01)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회소식

● 모 임

- 1. **특별 제직회** / 30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
- 2. **상조부 총회** / 31일(월) 오후7시 양자강
- 3. 1월 **남선교회 연합 예배 및 월례회** / 1월5일(토) 오후3시 101호
 - -이삭선교회(43-48년생), -모세선교회(49-53년생), -엘리야선교회(54-58년생) -비울서교회(59-63년생), -베드로서교회(64-68년생), -안드레서교회(69-73년생)
 - -빌립선교회(74-83년생)
- 4. 전 도 / **30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월2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도르가 전도회(607호)

오후 8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이간팀, 제1, 제2스테반회(한티공원)

3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중점전도: 우마, 미도 대치현대, 역사력키, 국제, 개포주공6.7단지)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4일(금) 오후 2시30분 70인전도대

5일(토) 오후 35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빌립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 1.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2.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이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3.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관에서 안내위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Sarah Kim)

4. 송구영신예배, 신년감사 예배 안내 / 201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라는 한 주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 12월31일(월) 오후 11시 본당에서 열리며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아

. 12월이 되는 11시 는 8에서 달리면 사다 1는 전 에를 들어보여 회개하며 신년을 기도와 찬양을 감사하며 맞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년감사현금도 드립니다.

1월1일 새벽기도회는 송구영신예배 관계로 별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신년감사 예배 : 1월6일(주) 새해 첫 주일을 신년감사예배로 드리며 주일예배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5. 성경통독사경회 / 2013년 새해를 맞아 성경통독사경회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1월3일(목)-4일(금) 2일간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

장소: 1층 웨스트민스터 홀 통독범위: 시편 - 예레미야 애가

접수는 시무국에서 하며 참가비는 10,000 원입니다.

6. 2013년 청지기 수련회(새해 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 2013년 청지기 수련회가 1월7일(월)부터 12일(토)까지 6일간 매일 오전5시 본당에서 열립니다.

청지기 되신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참석하여 은혜받고 기도로 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자 순례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2013년도 농어촌100교회, Vision 2020운동, 한가정한선교사 후원 접수 / 2013년도 농어촌100교회, Vision 2020 운동, 한가정 한 선교사 후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돕고 군 복무자를 전도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성도남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으로 계속 🖙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이정용	14교구	아브라함	인태팀	조원민	1교구	안드레	본인	지윤준	8교구	대학부	본인
이성례	14교구	사라	인태팀	정은영	14교구	청년1부	본인	주지영	4교구	고등부	시랑팀
윤태현	16-2	베드로	화평팀	김정재	8교구	대학부	최예순	장서원	4교구	고등부	시랑팀

☜ 앞면에서 계속

8. 주일예배 시간 영아부 운영 / 주일예배 시간에 베들레헴 홀403호)에서 0-24개월 이하 영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25개월-5세까지 어린이는 유아부, 6세-7세 어린이는 유치부에서 각각 예배드립니다. 아기를 안고 예배실(본당)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9.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장소: 302-306호·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1.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3688-9123

● 장 례

- 1. 故 황의순 님(9교구 이상범 집사의 모친) / 22일(토) 별세 24일(월) 발인
- 2. 故 이동수 장로(12교구 이희국 집사의 부친, 김인숙 집사의 시부) / 28일(금) 별세, 31일(월) 천국환송예배
- 3. 故 강정자 성도(13교구 김미숙 성도의 모친, 백승호 성도의 장모) / 28일(금) 별세, 29일(토) 발인

₹ 시작하는 사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말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세밀한 계획과 필요한 자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그 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기 희생을 각오할 수만 있다면 일단 일은 시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남의 흉내나 내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안일주의에 빠져 인생을 소일하기보다는 창조적 인물이 되어 무슨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위 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잊지 말자.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 해서 할 일, 못할 일 다 시작해 놓고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은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되 옳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